



The Monthly Newsletter

July, 2019 Issue 3



CONTENTS

The Confession Of A Volunteer

The Confession Of A Volunteer	Page 1
ONE Ministry Monthly Plan	Page 1
집에서 10분 놀이	Page 2
정보의 창	Page 2
Announcement	Page 2
나눔의 창	Page 2

천국의 조각..... 2018 년 여름 캠프 봉사자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로 장애인 사역을 돕게 되었을 때, 문득 예전에 들었던 말씀 하나가 기억났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어디였는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보면 꽤 오랜 시간동안 내 마음 속 깊이 여딘가 자리를 잡고 있었나 보다.

“세상이 깨질 때, 천국은 그 깨진 조각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주변부에 흩어져 있고, 그 잃어버린 조각이라면 누구나 알아차린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천국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천국의 맛을 보게 되고, 부족한 마음을 이런 천국의 조각들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후, 일상에 치여 살면서도 종종 ‘천국의 조각인가?’ 싶어 멈춰서서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아, 천국의 조각이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순간들도 있지만...

일상 속에 흩어져 있는 이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 꼭꼭 씹고 또 곱씹으며 온전히 내 마음의 조각으로 만들 때 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적을 누리는데 이런 느낌이겠지?’ 싶은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한다.

One ministry와 함께했던 3일이 나에게 이러한 조각이었음을 고백한다. 다른 조각들보다 크고 빛나기도 했다는 표현으로 정의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소보다 유난히 더 가난한 시기에 놓여있던 나의 마음을 눈에 띄 정도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준 꽤나 큰 조각이었다. 한 문장으로 이 시간을 정의해 보자면,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힘들면 힘들고, 행복하면 행복했지, ‘힘들지만 행복하다’라는 감정은 점차 내 마음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과정 속에 놓여있던 감정이었던 것 같다.

이 조각 속에 스며들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진정으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다. 사실 참 아이러니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목사님 댁으로 돌아오면, 내 몸 속 이런 위치에도 근육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평소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근육들이 몸 이곳 저곳에서 존재감을 알리며 쑤시고 뻘뻘하기도 했다.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끌어안고 살아서 잠을 청하지 못했던 내 모습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피로에 휩쓸려 머리만 닿으면 잠들기 바빴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 하게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듯, 갈라지는 내 마음 속에 한 줄기의 빛이 임하는 너무 신비롭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그리고는 몇 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그때의 감정이 잊히지가 않는다. 나란 사람, 원래 기억력이 유난히 짧아, 감정이든 상황이든 금방 마냥 깜빡 깜빡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같이 시간을 보냈던 장애인분들의 얼굴을 머리속에 떠올리면 그때의 감정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마냥 감사하고 신기한 현상일 따름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기도제목이 생겼다. 내가 장애인 사역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몸이 엉망진창 망가지고 힘들지라도, 장애인 사역동안 느꼈던 것처럼 마음만은 잔이 흘러 넘치는 풍성한 경험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보내실 곳이 어떠한 곳일 지라도 내 평생을 받쳐 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굳게 든다.

그래서 나는 장애인 사역의 시간이 나에게 천국의 조각이었음에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다.

ONE Ministry Plan For July

7월 8일 ~ 12일
7월 15일 ~ 19일
7월 22일 ~ 26일

여름 캠프

7월 24, 25일

랄리 한인 장로 교회
선교팀을 위한
저녁집회

집에서 10분 놀이

JIGGLINH ON THE DR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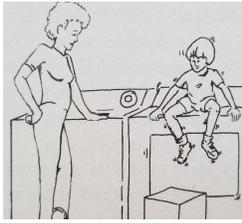
Does your little one have low muscle tone and seem considerably less active than other kids? Or is your child easily distressed and difficult to calm? In either case, this quickie experience may help you to organize the child's sensory system.

What you will need : Clothes Dryer or Washer, Stool or Sturdy Box

What to do : Start the machine and let the child sit on it. Supervise this activity closely.

Benefit of the activity :

By engaging the proprioceptors, gentle oscillation can both stimulate an underresponsive system and calm an overresponsive one.



정보의 창

SUNSHINE ON A RANNEY DAY

Sunshine on a Ranney Day는 장애아이를 위해 집을 레노베이션해주는 비영리기관으로 파트너쉽과 도네이션을 통해 휠체어 액세스가 가능한 화장실, 꿈의 침실, 가정 재활 치료실, 또는 집안에서 생활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등을 만들어 줍니다. 장애인들의 필요에 맞게 집을 개조해 줌으로 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개선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조의 규모는 가능한 후원액, 위치, 무엇보다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매년 1월에서 3월 31일까지 또는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일년에 두 번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신청서는 해당 위원회의 검토 후, 4월과 9월에 승인이 나게 됩니다. 신청 해당자의 나이는 반드시 4살에서 21살 사이여야 하며, 주소지는 우편번호 30075에서 60 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https://www.sunshineonaranneyday.com/nominate-a-child>



Therapy Room



Bathroom



Therapy Room



ANNOUNCEMENT

-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7월 8일-7월 12일 10:00am ~ 3:00pm Hey Yo (섬기는 교회)
2차: 7월 15일-7월 19일 10:00am ~ 3:00pm VBS Roar (슈가르프 교회)
3차: 7월 22일-7월 26일 10:00am~3:00pm Big World! Big Adventure! (비전교회) / 3주간 특별 프로그램:도자기체험, 오케스트라, Percussions
- 2019년 가을 학기가 8월 10에 개강하여 12월 14일 종강으로 17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 North Carolina 의 랄리 한인 장로교회 청년부가 여름캠프 두 번째 세션에 참여합니다. 주 안에서 멋진 동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North Carolina 랄리 장로교회, Atlanta 복음동산 장로교회, Australia 중국인 선은교회에서 여름 캠프 수업을 위해 많은 것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 랄리 한인 장로교회 선교팀을 위한 저녁 집회가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나 식사를 도우실 분께서는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라 전도사 817-965-3656)

7월 24일 (수) 강사: 김창근 목사 (원미네스트리 디렉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7월 25일 (목) 강사: 정원범 교수 (대전 신학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기독교와 공동체 영성"

특강 시간: 6시 (저녁식사), 7시 (집회 시작)
장소 : 3969 Woodruff Park Way, Buford, GA. 30519 (김창근 목사 자택)

나눔의 창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 없게 된 치료 용품이나 장난감을 나눠주세요. 더이상 필요없게 된 용품, 집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뉴스레터를 통해 좋은 나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보라 전도사 817-965-3656)
(Email: oneministryatl@gmail.com)



호흡기가 약해 가래나 콧물이 많은 경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폐렴으로 고생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정용 석션기 나눔 합니다.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제품입니다.

지난 달에 게재되었던 자전거, 스탠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